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매출 10억 돌파

설 기획전·제철 농산물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 성과... 매출 26% 성장세 '눈길'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매출 10억을 돌파하며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로 소농·고령농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전자상거래의 올해 1~3월 누적 매출액은 약 10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8억 1,000만 원 대비 26%가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설 기획전, 봄 제철 농산물 기획전, 저장 농산물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온라인 판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에 매진한 결과다.

시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가치를 걸고,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온라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시기별·계절별 기획전과 라이브 방송, 농산물 소비 할인 지원 등 다방면으



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고도화(순회·수집, 일반 택배), 가격하락 농산물 판매 등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편의 증진에도 힘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 입점 확대와 올해 판매액 43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계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 강화, 품질 관리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가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와 올해 판매액 43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6차 식품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

17~25일, 4회 걸쳐 간부 공무원 90여명 하림 견학 추진

지자체-기업 협력해 미식산업·문화관광 연계 방안 모색

익산시가 향토기업인 ㈜하림과 협력해 6차 식품산업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익산시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5급 간부 공무원 92명이 참여하는 ㈜하림 견학을 추진한다.

이번 견학은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6차 식품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미식산업, 문화관광 연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성면에 위치한 ㈜하림과 합열 제4산단 내 하림산업은 총 27만㎡ 규모의 시설을 갖춘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림은 삼계탕과 용가리치킨 등 1,000여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하루 평균 65만 마리를 도계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하림산업은 퍼스트키친(First Kitchen)을 통해 밥, 국, 탕, 찌개를 비롯한 가정 간편식과 천연조미료, 라면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약 4만5,000명이 선진 식품 기술과 제조 과정 등을 경험하기 위해 ㈜하림을 방문했으며, 올해는 6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견학에서 익산시 간부 공무원들은 ㈜하림의 전자동화 식품 가공·육가공 공정을 직접 살펴본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조성된 하림산업의 온라인물류센터를 방문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신선한 식품을 가정에 배송하는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견학을 계기로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식품 제조업)과 3차 산업(관광서비스업)의 융복합과 연계 방안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

군산시, 평생교육사업 우수성 인정 받아... 관내 4개 대학교 참여·상생 협업 추진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점 평생교육 사업인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도비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전북자치도가 지난 2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 실시한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지자체와 대학교가 상생·협업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지역의 동반성장과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군산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각 대학교에서는 교육생 모집 홍보,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올해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4개 대학교 실무자와 3차례 걸쳐 양질의 특화 교육과정을 협의했다.

2025년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는 오는 3월 24일부터 전북시민대학 누리집(lms.jules.or.kr/lifelongedu)을 통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총 15개 교육과정이 동시에 운영된다.

먼저 군산대학교는 실용 일자리와 연계되는 △예비 은퇴자를 위한 귀농 귀촌 협동조합 실무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과정 등 2개 과정을 준비했다. 호원대학교는 K-콘텐츠 관련 △맛있

는 군산, 군산미식여행 △드론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편집 실무 등 3개 과정을 진행한다.

군장대학교는 지역특화를 위한 △리빙랩 기반 군산 특화식품 개발 △천연염색 생활소품 만들기 등 4개 과정이 군산간호대학교는 '여성건강 증후군', '생명을 살리는 생존 간호' 2개 과정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학습 기회가 적은 오식도 동 군산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Chat-GPT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등 맞춤형 교육과정,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 사회이해 등 3개 공통 과정이 운영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한권의 책' 선호도 조사 진행

익산시는 2025년 '한권의 책' 선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민들에게 후보 도서를 추천받았으며, 이중 교사·사서·독서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후보 도서는 성인 부문 3권, 청소년 부문 3권, 어린이 부문 3권 등 총 9권이다. 성인 부문은 △대운실 수리 보고서(김금희) △빛과 멜로디(조해진) △빛이 이끄는 곳으로(백희성)가 후보에 올랐다.

청소년 부문은 △브릿지(문경민) △울의 시선(김민서) △이중 하나는 거

짓말(김애란)이며, 어린이 부문은 △복을 그리는 아이(한현정) △애와애 동아리(진형민) △행운이 꾸르는 속도(김성운)가 후보 도서로 선정됐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익산시민 누구나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영등도서관(063-859-7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 시작

군산시가 17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3월 1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군산시청 누리집 또는 교육지원과(군산시청 7층)를 방문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6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계좌로 지원금을 상환 처리할 계획이다.

궁금한 점은 시청 누리집이나 교육지원과 ☎063-454-259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06년생 청년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군산시는 만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6년생 청년들에게 공연과 전시 관람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6년생 누구나 가능하다. 1인당 1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단,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이메일 기준 6월 30일까지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포인트가 회수된다. 가입 및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하면 되고 협력 매체(예스24,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